임채정 前의장 비서관 北 간첩활동 파문

北 지령받은 지하당 주도 '왕재산' 서울총책 맡아

검찰, 野 단체장·기초의원 등 정치권 인사 수사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학계와 정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수십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민주당 출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 비서관이 구속되고,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도 다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을 구성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의장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정보기술(IT) 업체 J사 대표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왕재산(山)은 김일성 주석이 1933년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최북단 온성에 위치한 산으로,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조직원 간 통신을 주고받을 때 '왕재산 올림'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돼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당을 구성하고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왕재산 2인자로 서울지역 총책을 맡아 지하당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남파·고정 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요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검찰은 김씨 등이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총 59차례 해외에 다녀오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와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년 동안 국내 정세 정보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으며 노동신문 사설 등 북한 원전을 입수해 이메일 문서함에 저장하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지역책과 인천지역책, 내왕연락책, 선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했고, IT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김씨의 USB에서 현직 야당 지자체장 두 명의 이름을 확인, 이 중 한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 등은 당국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또 노동단체 간부와 야당 당직자, 야당 출신 기초단체의원 등 4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번 사건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반(反)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지난 25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수 천명의 군중이 한 손에는 꽃과 한 손에는 'Utoeya' 'Oslove'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22일 발생한 우토야(Utoeya)섬의 총격테러로 숨진 피해자들의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이번 테러를 관용과 인류애로 이끌자는 'Oslove'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美 디폴트, 막판 타결 가능성

부채 상한선 증액 조율

백악관-의회 협상 진전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과 의회가 물밑 총력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백악관에서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재개돼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타결 쪽으로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마무리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말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관리들은 현재 논의중인 계획은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2단계에 걸쳐 2조4000억달러(약 2529조원) 증액하고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상당히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추진하는 부채상한 증액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폐기한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회동, 대책을 조율했다.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부채협상에 대해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합의 가능성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각각 자체적인 부채 상한선 증액안을 내놓고 서로 부결시키는 등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부채상한선 증액안을 부결시켰다. 리드의 안은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하원의 표결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상원에서 정식 표결에 채 들어가기 앞서 이뤄진 것이다.

또 상원 공화당 의원 43명은 리드 원내대표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할 방침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북-미 화해무드로 선회하나

1년 7개월만에 양측 고위급 회담 진전

"건설적인 대화… 협의 계속해 나가겠다"

1년 7개월만에 다시 열린 북한과 미국간의 이틀에 걸친 고위급 대화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 발표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그러나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회담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고위급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회담재개나 미국과의 관계개선, 지역 안정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보즈워스 대표는 대화 후 짤막한 소견발표를 통해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면서 "회담 진전을 위해 다음 단계로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보즈워스에 한시간 가량 앞선 오후 1시20분께 회담장을 나서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 보즈워스 선생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조미 고위급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취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김 부상은 '이것으로 회담은 다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다 끝났다"고 답했으며 공동성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공동성명 발표는 없다"고 말한 뒤 숙소인 밀레니엄 유엔플라자로 돌아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미대화와 관련해 "건설적이었다"면서 "이번 대화는 탐색적인 만남이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신장서 무차별 흉기난동 35명 사상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카스시에서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난자 사건이 발생해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신장자치구 정부 신문판공실이 주관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톈산왕'은 지난 30일 오후 11시 45분께 카스시내 음식거리 길목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범인 2명이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트럭에 올라타 운전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트럭을 인도로 몰았으며, 이어 트럭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최소 7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범인 2명은 참극을 목격하고 달려든 행인들에게 제압됐으며, 격투 과정에서 범인 1명은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붙잡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범인과 피해자를 합쳐 최소 36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톈산왕은 현장에서 부상한 행인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지 공안 당국도 붙잡힌 범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고 전에는 두 건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영문기사로 전했다. 첫 번째 폭발은 오후 10시30분께 한 미니밴에서, 두 번째 폭발은 거의 같은 시각 흉기 난자 사건이 발생한 음식거리에서 일어났다.

공안당국은 연쇄 폭발에 이은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이 지난 18일 신장위구르자치구 허톈(和田)시에서의 공안 파출소 충돌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으며, 그와 연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포기 대가 경제지원 제안 냉담"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이 지난주 공식 회동했을 때 북측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다른 유인책 등을 받는 방안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일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면서 남북은 차기 주요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앞서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위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만나 2시간가량 회담했다.

위 본부장은 당시 회담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북측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지원과 다른 유인책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은 대신에 핵포기를 전제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담은 9·19공 동성명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으로서는 이 회동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했으며 두 번째 단계로는 북측이 이번 주 뉴욕에서 미국 대표와 회담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